

식약처·노동부,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경제적 자립'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망 넓힌다

- 전국 102개소 지원망 확충 및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지원체계 본격 가동
- 자발적 재활 의지가 있는 회복자 누구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는 회복자들이 건강한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취업지원 서비스 신규 연계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함께한걸음센터' 재활교육 참여자 중 구직 의지가 있는 회복자들에게 개인별 취업 여건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 연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시범사업 결과, 회복자가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등 직업교육 등 연계서비스가 회복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이 됨을 확인했다.


이번 신규 연계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회복자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고용복지+ 센터를 안내하여 전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16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고용복지+ 센터간 1:1 담당자 매칭 등을 통해 회복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시범사업은 기소유예자 등 사범에 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이번 신규 연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재활을 결심한 회복자 등 비사범까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 사업 확대 현황 〉

| 구분 | 현행 | 향후 |
|-------|--------------------------|--|
| 지원 대상 | · 사범(기소유예·출소자 등) 한정 | · 사범 + 비사범(자발적 재활자) 전체 |
| 연계 기관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지소 시범 연계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지부·지소 ·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 |
| 지원 규모 | 5개소 | 128개소 |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회복자의 경제적 자립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회복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 |
|---|--|
| <p>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  <p>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p> |
|---|--|

식품의약품안전처 · 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ADHD #살빼는 약 #나비약 #마약 #대마 #향정

“마약 문제로 힘들 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고통스럽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1342**가 함께 할게요.

1342

당신의 일상



24시간 사이

| | | | | |
|-------|---------------------|-----|-----|--------------------|
| 담당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책임자 | 팀 장 | 김상현 (043-719-2581) |
| | | 담당자 | 연구관 | 이정선 (043-719-2583)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병성 (044-202-7327)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형서 (044-202-7341) |

